

佛陀의 根本情神에 歸依하라

[佛敎] (1931년 7월호)

나는 平素부터 佛敎에 對하여서는 다만 好意 가졌을 뿐으로서 그 根本義에 깊이 들어가서까지 蘊奧한 敎理를 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또한 일찍이 興味를 가지고 보아오던 敎團이었던 만큼 노상 거기에 對한 希望과 私見이 없지도 않다. 그러므로 而下에 비록 概括的이나마 敎團에 對하여서나 敎政에 對하여서나 社會事業에 對하여서의 나의 管見을 大綱 말하여 보겠다.

•첫째, 敎團에 對하여 나의 생각하는 바를 말하여 볼 것 같으면 原始佛敎 時代에 있어서도 元來 佛敎는 二重敎團으로서 僧家耶衆이라 하면 四大部衆이라고 하여 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尼로 나누어가지고 比丘 比丘尼로 말하면 반드시 獨身生活者로서 佛敎의 情神과 學理만을 研究하여 敎團의 體가 되어가지고 宗風을 舉揚한다. 一般 信徒를 敎化한다 하여 法供養으로써 自己네들의 使命이라 하였고 優婆塞 優婆尼는 곧 佛敎의 情神下에 社會의 實生活裡에 들어가서 士農工商의 諸機關內에서 生活을 하는 이들로 比丘 比丘尼들에게 法供養을 받는 代身에 그네들에게 物質로써 供養具를 바치게 되어 敎團의 用이 되어가지고 理論을 實際化하는 이들이었다. 그러므로 在來에 우리도 佛敎라 하면 곧 山間에서만 隱居하여 超現實的 宗教로만 알았더니 내가 監獄에 있으면서 佛敎에 對한 書籍을 읽어보는 동안에 佛敎가 그렇게 超現實的 宗教가 아니요, 도리어 卽實主義의 宗教인 것을 切實하게 깨달았다. 그러므로 우리 일반 社會人으로도 過去의 佛敎를 排斥하여 山間宗教로만 알고 一般的 誤解를 가졌던 陳舊한 觀念만은 비우고 보아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同時에 佛敎 敎團 自體에서도 스스로 處決할 問題는 在來의 僧侶團을 分裂시켜서 斷乎히 理事兩判의 僧侶의 行爲까지라도 明白히 하지 아니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理判僧侶는 어디까지든지 戒行이라든지 知德을 兼修하여서 一般 信徒들에게도 儀範이 되도록 되어야 할 것이며 事判僧侶에 있어서도 亦是 個人問題이지마는 宗教人으로서 忌避할 만한 것은 될 수 있는대로 勤愼하여 社會에 誤解가 없도록 努力하지 아니하면 또한 안될 것이다.

•둘째, 敎政에 對하여서는 亦是 事判이라 하여 一端 事務에만 注目할 것이 아니라 敎界가 어떻게 해야 振興 發展이 될까를 觀察하여 첫째 高僧大德을 極力으로 擁護해서 敎界의 情神集中에 努力하며 法脈을 繼承하는 點도 크게 憂慮하여 慧命을 이을 積極的 方針을 取하지 아니하면 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社會事業에 關하여서는 方今 學校를 經營한다, 布敎所를 設置한다, 幼稚園을 經營한다 하여 많은 努力을 다함은 고맙게 생각하는 바이나 元來 社會事業에 對하여서는 他敎의 하는 方針을 많이 參酌함이 좋을 것이다. 決코 남의 模倣이 아니라 그밖에 길이 따로 없다면 비록 남이 먼저 行하였다고 그길을 아니 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都大體 크게 우리 朝鮮의 諸方面을 觀察한다면 너무도 宗教的 修養이 부족한 것이 우리 民族의 全般的 缺陷인 것이야 識者면 다 首肯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信仰心은 모든 것을 이기고 남는 것이기 때문에 乃終에는 生死問題까지라도 그리 어렵게 보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功利的 方面으로만 보아서도 宗教的 信心이 그 얼마나 社會的 惠義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過去에 우리 朝鮮은 儒學思想에 너무 그릇 中毒이 된 所以로 죽음이라 하면 그만 暗黑에 돌아가고 마는 것 같이 생각하여 死에 對한 恐怖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根氣와 意志를 여간 弱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宗教로 因하여 自己使命에 殉死하면 天堂이나 或은 極樂世界에 꼭 간다는 信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람의 殉節하는 美德을 培養시키는지 모른다. 이 點은 哲學이나 道德이나 法律이 宗教에 미치지 못함이 크다. 나는 그만큼 宗教에 對한 期待가 많고 또 특히 佛敎에 對하여서는 以上の 몇몇가지 條件에 對한 囑望이 크다는 것을 말하여 둔다.